

창업동기, 창업역량 및 창업지원 정책이 창업 초기기업의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강영철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¹⁾ 하규수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²⁾

국문요약

사회·국가적으로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신생 기업의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 만족도를 재고하여 생존율을 높일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 동기, 창업역량, 창업지원 정책이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창업 동기는 세부적으로 경제적 동기와 자아실현 동기로 구분하였다. 창업역량은 세부적으로 경험역량과 마케팅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창업지원 정책은 세부적으로 창업자금지원과 창업컨설팅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온오프라인으로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의 경영자 250명으로부터 설문을 받아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경험역량, 마케팅역량, 창업자금지원은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창업컨설팅 지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자아실현 동기, 경험역량, 마케팅역량, 창업자금지원, 경제적 동기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과는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경험역량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마케팅역량, 창업자금지원, 창업컨설팅 지원은 조절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자아실현 동기와 경험역량이 창업 만족도 제고에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학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초기 창업가의 자아실현과 경험역량을 극대화할 창업 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컨설팅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초기 창업기업, 창업 동기,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창업역량, 경험역량, 마케팅역량, 창업지원 정책, 창업자금지원, 창업컨설팅 지원, 사회적지지, 창업 만족도

I. 서론

창업은 창업가가 개인적으로 부를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로 관심을 받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고용 창출의 원천이자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업 생멸 행정통계(국가통계포털, 2021)에 따르면 2019년 말 현재 국내에는 652만여 개의 기업이 경영활동 중이다. 그런데 2019년 한 해에만 99만여 개에 이르는 기업이 새롭게 태어났지만 약 73만 개의 기업이 소멸하여, 경영 활동기업 10개 중 1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 이처럼

1)제1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yc3442@naver.com

2)교신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ksh@hoseo.edu

· 투고일: 2022-11-12 · 수정일: 2022-12-5 · 게재확정일: 2022-12-21

기업을 창업하여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016년 이후 생존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이나 2019년도 신생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4.8%, 5년 생존율은 32.1%에 그치고 있어 신생 기업 셋 중 둘은 여전히 창업 후 5년 이내에 소멸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창업기업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 2022)에서 창업의 장애요인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창업자금 확보 어려움(70.9%)’과 ‘창업 관련 지식, 능력, 경험 부족(30.7%)’이 제시되었다. 이는 초기 창업기업들이 자금 애로, 역량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해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초기기업의 낮은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자의 창업 만족도가 증대되면 사업지속의도 또한 증대될 수 있다(이희혁, 2020; 한향원, 2021). 결국 창업기업의 생존을 제고를 위해서는 초기 창업자의 창업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연구를 통해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자영업자, 기 창업자, 창업기업 등의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초기 창업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드문 편이다.

초기 창업기업은 자원, 네트워크 측면에서 기존 기업보다 불리하다(Lee, 2010). 이처럼 불리한 여건을 가진 초기 창업기업에게 창업가의 역량은 곧 기업의 역량으로 직결된다(McGregor and Tweed, 2001), 따라서 초기 창업기업은 창업가의 개인적 역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초기 창업기업들은 창업 동기에 대해 별다른 인식 없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 맞춰 창업을 시작하는 특성도 일부 있다(한향원, 2021). 이러한 초기 창업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초기 창업자의 창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영향요인으로 창업 동기, 창업역량, 창업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제고시킬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 동기, 창업역량, 창업지원 정책이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했다. 둘째,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 동기, 창업역량, 창업지원 정책이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하고자 했다. 셋째, 창업 동기, 창업역량, 창업지원 정책과 창업 만족도 간에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고자 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초기 창업기업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 Kuratko and Hodgetts(2004)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자이며 기업의 각종 자원을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개척하는 자라고 하였다. Dimov(2010)은 새로운 영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효율적이고 수익성 있는 생산 프로세스를 통해 가능성과 사업 기회를 추구하는 자를 초기 창업자라고 하였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연령별 기준은 획일적이지 않고 다소 상이하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 3항)에서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은 업력 7년 미만의 (예비)창업기업으로 한정하여 지원(중소벤처기업부, 2022)하고 있다. 오재우 외(2015) 및 박준기,이세운(2017)도 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업을 초기 창업기업 또는 스타트업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권기환,김진홍(2017)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가를 초기 기업가라고 구분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에 따라 초기 창업기업의 연령별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학문적인 개념 정의도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창업보증 지원기준을 감안하여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을 초기 창업기업으로 정의하여 연구하였다.

2.2 창업 동기와 창업 만족도

동기(motivation)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계기로써 행동을 일으키는 내적인 직접적 요인을 총칭한다. 동기부여에 관해 Maslow(1943)는 욕구단계이론(hierarchy of needs)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서는 생리적욕구, 안전욕구, 사회적욕구, 존중욕구, 자아실현욕구의 다섯 단계가 존재하고 단계별 만족 여부에 따라 동기가 부여된다고 주장하였다. Herzberg(1959)는 동기-위생이론을 통해 만족 요소인 동기요인과 불만족 요소인 위생요인을 분리했다. Herzberg에 따르면 불만족 요소인 위생요인을 제거한다고 해도 적극적인 동기부여는 될 수 없다. Herzberg는 금전적 보상, 직업의 안전성 등을 위생요인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적당하면 불만이 감소하겠지만 만족해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Ryan and Deci(2000)는 자기결정성 이론(SDT: Self-determination theory)을 통해 인간은 자기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로 동기화된다고 하였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동기를 내재적(Intrinsic) 동기와 외재적 (Extrinsic) 동기로 구분한다. 내재적 동기가 개인적 관심 또는 자율성 등 개인적 이유에 근거한 동기라면, 외재적 동기는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거나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보다 지속가능성이 크고, 더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결정성 이론이 주장하는 중요한 요지이다. 또한 내재적 동기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더 강력해진다. 이러한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면 사람은 일에 대한 만족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선택하여 동기 부여한 일 자체를 즐거운 과정으로 인지한다.

유봉호(2013)는 창업 동기를 새로운 사업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라고 정의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 포착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통해 창업가에게 신사업 의지가 생기도록 도와주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한향원(2021)은 창업 동기에 대해 창업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창업 이후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

지금까지 다양한 대상으로 연구된 창업 동기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요인이 주요 요인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사회문화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성취욕구, 자아실현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창업 동기의 구성 요인에 대해 박남태(2016)는 경제적 안정, 자아성취로 구분하였다. 선량(2019)은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로 구분하였다. 박성근(2021)은 재정적 독립, 취업의 대안으로 구분하였다. 양경애(2020)는 독립의 동기, 생계유지의 동기, 부의 동기로 구분하였다. 한향원(2021)은 경제적 성취동기, 자아실현 동기로 구분하였다. 한편, 2019년도 창업기업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 2022)에 의하면 초기 창업기업이 응답한 창업 동기중 '더 큰 경제적 수입(50.8%)과 '적성에 맞는 일(39.9%)'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경제적인 동기와 자아실현 동기가 초기 창업기업들의 주요한 창업 동기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주 연구 대상이 초기 창업기업으로 생계형 창업자보다 기회형 창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Ryan and Deci(2000)의 자기결정성이론(SDT)을 반영하여 외재적 동기인 경제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인 자아실현 동기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승환 외(2017)에 의하면 개인의 동기는 만족도와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었다. 김덕기,박효선(2021)은 동기에 따라 직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병권(2014)은 재무적 창업 동기가 재무·비재무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장수덕(2020)은 창업 이후의 성과요인인 경제적 소득이 외재적·내재적 창업 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한향원(2021) 등은 자아실현 동기와 창업 만족도 간의 유의한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선량(2019)은 성취동기와 창업효능감간의 유의한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Cetin and Ali(2022)가 영국과 터키의 관광호텔 산업 초기 창업자 172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경제적 동기는 창업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창업 만족은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ilot-Lapointe and St-Jean(2021)가 농업 분야 초기 창업자 171명을 대상으로 SDT 모형을 바탕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자아실현 동기는 창업 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rree and Verheul(2021)가 독일의 초기 창업자 1,107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경제적 동기와 자아실현 동기가

창업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창업역량과 창업 만족도

역량은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적 특성(Dainty et al., 2004; Morris et al., 2013)이다. Wernerfelt(1984)가 소개한 자원기반이론(RBV: Resource Based View)의 관점에서 보면 창업역량은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창업역량은 협의로는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창업자의 능력(이혜영, 2018; 장영미, 하규수, 2018)이며, 광의로는 창업기업이 지속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기업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기업가의 역량(Baum et al., 2001; Chandler and Jansen, 1992 ; 김춘근 외, 2014)이다. 김재홍 외(2021)는 창업가와 관련된 요인을 핵심적인 경영자원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고, 창업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경영자원은 창업가 역량이라 하였다. 뛰어난 창업가 역량을 가진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높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Colombo and Grilli, 2005).

창업역량의 구성 요인에 대해 장영미(2018)는 창업자 경험, 자금조달역량, 기술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최동은, 황선진(2018)은 디자인역량, 네트워크역량, 자금조달역량, 기술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이혜영, 김진수(2019)는 기회인식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관계역량, 전략역량으로 구분하였다. 한만선(2020)은 사업기회역량, 기술역량, 자금조달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양경애(2021)는 정보기술역량, 네트워크역량, 경험역량, 창의성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창업역량에는 산업체 경험이나 스타트업 경험 등 경험역량이 포함된다. 창업자에게 창업 경험이 있다면 없는 경우보다 실패 확률이 낮을 것이다(Delmar and Shane, 2006). 이처럼 창업자의 창업 경험과 조직 운영·관리 경험은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관련 경험이 많아 노련할수록 시장 기회 발견과 포착에 유리하고, 기존 경험에서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높으므로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초기 창업기업의 특성상 창업가의 능력과 자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능력은 창업가의 관련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Chwolka and Raith, 2012 ; Dencker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초기창업기업의 창업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고 창업기업의 성공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바, 여러 창업역량 중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영향 관계가 확인된 경험역량과 마케팅역량을 창업역량의 구성 요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여러 연구의 결과, 창업역량은 창업 성과에 대한 창업자의 주관적 만족 정도인 창업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상화, 하규수(2015)는 창업역량이 창업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도희(2021), 이성호, 남정민(2021)은 창업역량이 창업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lshibani and Volery(2021)에 의하면, 창업 경험은 창업자가 자신의 열정과 목표 지향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창업 초기 단계에 있어서 경험역량은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urden(2021)에 의하면 경험역량은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김진한 외(2020)는 마케팅역량이 재무·비재무 성과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Khan and Khan(2021)은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마케팅역량과 성과가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Sala and Barikzai(2022)는 창업기업이 마케팅역량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할 수 있고 마케팅역량이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4 창업지원 정책과 창업 만족도

창업은 개인의 부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일 뿐 아니라 사회·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는 1986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정, 1996년 중소기업청 개청,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17년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등을 통해 창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왔다. 기업의 보유자원에는 한계가 있고 기업이 경쟁기업보다 높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김수길, 2022).

창업지원 정책은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훈련, 사후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Johnson, 1990). 창업지원 정책의 구분에 대해 박남규 외(2015)는 창업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안상봉, 신용준(2017)은 금융지원 등 직접지원 정책과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간접 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정경희(2020)는 직접지원(창업자금)과 간접지원(교육, 멘토링, 인프라)으로 구분하였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창업지원 관련 정책에 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지원 정책 분야별 성과 분석은 매우 중요하고, 창업지원 정책의 중요성과 정책별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졌다(안승구, 2017). 김창봉, 이승현(2017)은 초기 창업기업의 경영안정과 성공을 위해 창업자금 지원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김순태(2013)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자금 지원보다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 성장을 위해 창업자금 지원과 컨설팅 지원이 효과적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책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양한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중에서 선행연구 결과 초기창업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도가 높으면서도 중요도에 대해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창업자금 지원과 창업컨설팅 지원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업자금지원은 초기 창업기업의 경영안정과 성공률 제고에 이바지하는 등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창봉, 이승현, 2017), 창업자금 지원 규모와 기업의 매출은 정(+)의 영향 관계에 있다(정경희, 2020). 박희상(2020)도 창업자가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 창업자의 경우 재무성과, 고객성과, 내구성과 균형 성과가 모두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김상화(2022)에 따르면 창업지원 정책들은 초기 창업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내는 기반이 되며, 창업기업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향원(2021)은 초기 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제도가 창업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김수길(2022)은 정부의 재무적, 비재무적 기업지원 사업이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Huđek and Širec(2021)은 정부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이 개인 창업가의 창업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부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창업생태계가 창업가의 창업 성과 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Sarkar and Hayes(2021)는 창업컨설팅이 기업이 정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역에서 확실한 효율성을 지니며, 초기창업기업의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기술 기반 창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안승구, 2017)에서 컨설팅사업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실효성이 낮게 나온 결과도 있었다. 또한 한국의 창업 초기기업 지원 제도가 타 국가 대비 지원 내용과 규모 측면에서 잘 갖춰져 있으나, 연계 체계가 취약하여 시너지효과 창출에 미흡하고 창업자의 효과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김선우, 2020). 김선우(2020)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초기 창업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연구개발, 재무 상태, 고객현황 등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창업 초기단계 기업의 특성상 신뢰도 높은 데이터가 부족한 현실을 들었다.

2.5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과

사회적지지는 심리학에서 태동 된 용어로, House(1981)는 사회관계에서 개개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 자원과 도움으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관계에서 주고받는 정서적 관심, 도구적 지원, 정보,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오승국(2016)은 사회적지지를 사회적 상호관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통칭한다고 하였다. 김남표, 권영주(2018)는 사회적지지에 대해 창업자가 속해 있는 사회로부터 창업에 대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라 하였다. 박경석(2014)은 창업 준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위험 요소를 극복하는 데 사회적지지가 도움 된다고 하였다. 창업 초기에 수많은 도전을 겪을 때 가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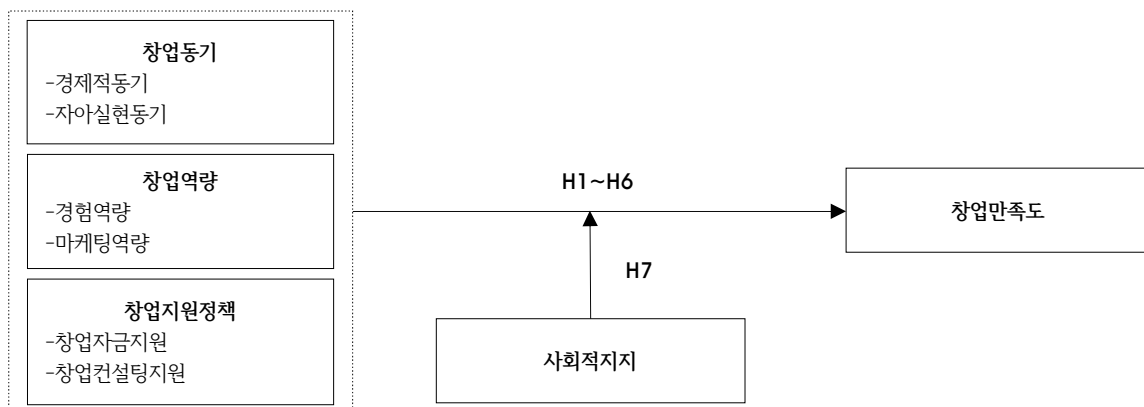
이해와 강력한 지지가 필요(Uchino, 2009)하다. 한운영,권재기(2022)는 한 개인의 창업 동기가 더 강하게 발현 되려면 가족, 교사, 그 외 의미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물리적, 교육적 환경지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창업의 이전 단계인 창업 의지에서부터 창업을 통해 얻어낸 기업성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회적지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볼 수 있다(임희진 외, 2020).

사회적지지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나, 창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의 연구는 많지 않다.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과와 관련하여, 최명화, 조성숙(2014)의 연구에서 가족의 지지는 중년 직장인의 퇴직 후 성취욕구와 창업 효능감 간에 조절 효과가 있었다. 박경석(2014)이 중국 교포로서 한국에 거주 중인 잠재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성취욕구, 창업 동기와 창업 의도 간에는 사회적지지 중 공적 지원이, 창업 경험과 창업 의도 간에는 사회적지지 중 정서적 지원이 조절 효과가 있었다. 한편, 장영미, 하규수(2018)의 연구에서는 창업역량과 창업의지 간에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과는 연구 내용에 따라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추가 필요한바, 본 연구는 이에 초기창업기업의 창업 동기, 창업역량 및 창업지원 정책과 창업 만족도 사이의 사회적지지가 미치는 조절 효과를 규명하였다.

III.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그림1과 같이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 창업 동기 중 경제적동기와 자아실현동기, 창업역량 중 경험역량과 마케팅역량, 창업지원 정책 중 창업자금지원, 창업컨설팅 지원을 설정하였다. 이들 변수가 창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사회적지지에 따라 영향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지지를 조절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연구모형을 활용하여 초기 창업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3.2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 인과관계 가설설정과 이들 관계에서의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과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3.2.1 인과관계 가설

창업 동기가 창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병권(2014), 선량(2019), 장수덕(2020), 한향원(2021), Milot-Lapointe et al.(2021), Cetin and Ali(2022) 등의 선행연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H1) 창업 동기 중 경제적 동기는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H2) 창업 동기 중 자아실현 동기는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업역량이 창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상화, 하규수(2015), 김진한 외(2020), 이성호, 남정민(2021), 김도희(2021), 송민용(2022), Alshibani and Volery(2021), Burden(2021), Khan and Khan(2021), Sala and Barikzai(2022)의 선행 연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H3) 창업역량 중 경험역량은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H4) 창업역량 중 마케팅역량은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업지원 정책이 창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창봉, 이승현(2017), 정경희(2020), 박희상(2020), 한향원(2021), 김상화(2022), 김수길(2022), Hudek and Širec(2021), Sarkar and Hayes(2021)의 선행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H5) 창업지원 정책 중 창업자금지원은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H6) 창업지원 정책 중 창업컨설팅 지원은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가설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중에 사회적지지를 조절변수로 활용한 경우는 아직 많지는 않은 실정이다. 다만, 최명화·조성숙(2014), 박경석(2014)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적지지에 따라 독립변수가 창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7-1(H7-1) 사회적지지는 경제적 동기와 창업 만족도간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7-2(H7-2) 사회적지지는 자아실현 동기와 창업 만족도간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7-3(H7-3) 사회적지지는 경험역량과 창업 만족도간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7-4(H7-4) 사회적지지는 마케팅역량과 창업 만족도간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7-5(H7-5) 사회적지지는 창업자금지원과 창업 만족도간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7-6(H7-6) 사회적지지는 창업 컨설팅지원과 창업 만족도간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3.2.3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 창업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활용된 유효한 데이터 세트는 총 250개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측정 항목 및 항목 작성 시 참고한 문헌은 Table III -1과 같다.

<Table III-1> 측정 항목 및 참고 문헌

변수	측정 항목	항목 수	참고 문헌
경제적 동기	돈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구 수준	5	이병권(2014) 선량(2019) 장수덕(2020) 한향원(2021)
자아실현 동기	자기가 좋아하고 적성에 맞으며 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꿈과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수준	5	
경험역량	동종 혹은 유사 업종 업무 경험, 노하우 수준, 사업 관련 경력 및 전문성 수준	5	이상화·하규수(2015) 김진한 등(2020)

마케팅역량	시장분석 및 전략 수립 역량, 제품 라이프사이클 파악, 판매채널 구축역량, 경쟁제품 파악 역량 수준	5	이성호·남정민(2021) 김도희(2021) 송민용(2022)
창업자금지원	자금지원(창업자금, 제품개발자금, 시설자금 등)을 받은 지원 횟수, 지원 규모, 효과성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4	김창봉·이승현(2017) 고석원(2019) 정경희(2020) 박희상(2020) 한향원(2021) 김상화(2022) 김수길(2022)
창업컨설팅 지원	컨설팅 지원(경영컨설팅, 기술컨설팅)을 받은 지원 횟수, 지원 규모, 효과성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4	House(1981) 이상화(2016) 장영미(2019)
사회적지지	지인 등 타인으로부터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과 관련한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지지를 받는 도움과 지원인식 수준	5	Herzberg(2017) 이상화·하규수(2015) 한향원(2021)
창업 만족도	창업자가 느끼는 현재 사업에 대한 만족도로 향후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주관적 감정 수준	4	

IV. 실증분석 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측정 변수인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경험역량, 마케팅역량, 창업자금지원, 창업컨설팅 지원, 사회적지지, 창업 만족도 측정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타당도란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혹은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우종필, 2022). 즉, 하나의 척도나 검사의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도를 말한다.

타당성은 세부적으로 내용 타당성과 개념 타당성으로 구분된다. 내용 타당성은 측정용 도구의 항목들이 측정 개념을 대표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개념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의 측정 정확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타당성 분석이란 측정용 도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지, 조사대상자를 통해 측정하려는 추상적개념이 실제의 측정용 도구로서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타당도를 검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탐색적 요인분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이론적으로 구조가 확립되지 않은 주제에서 주로 모델의 구조를 발견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집된 자료가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는지 파악되지 않을 때 요인의 숫자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신뢰성은 특정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대상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정확성을 나타낸다(우종필, 2022).

4.1.1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타당성 검정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평가 문항(변수) 간의 구조를 살펴서 공통 요인을 묶어주고, 평가도구의 구성 개념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우종필, 2022). 측정용 도구의 회귀분석 변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에 주성분 분석과 Varimax 직각 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 수의 결정을 위해서 고유치와 요인 적재 값을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별 요인 적재 값은 사회과학 연구의 권고치인 .6 이상을 사용하였다. 최종 요인분석 결과 8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76.624%로 나타났다.

수집된 요인분석 적합도를 위해 KMO 표본 적합성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를 검토하였다. KMO 검정값은 .6 이상이 되어야 하고 .8 이상이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KMO(Kaiser-Meyer-Olkin)는 .90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chi^2=10557.004$, $df=666$, $p<.001$ 로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IV-1>과 같다.

<Table IV-1> 탐색적 요인분석의 KMO 및 Bartlett의 검정 결과값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검정		.90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Approx χ^2)	10557.004
	자유도(df)	666
	유의수준(p)	.000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 적재값이 .6 미만이거나 같은 요인으로 잘 묶이지 않은 변수는 제거하는데 본 연구에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없어 측정된 모든 항목을 사용하였다.

<Table IV-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변수	경험역량	창업컨설팅 지원	창업 만족도	마케팅역량	사회적지지	자아실현 동기	창업자금지 원	경제적 동기
경험역량	EC4	.880	.080	.125	.189	.070	.084	.075	.112
	EC1	.873	.096	.138	.103	.137	.080	.048	.088
	EC3	.847	.102	.121	.078	.082	.057	.041	.150
	EC2	.819	.107	.211	.194	.136	.130	.096	.090
	EC5	.796	.059	.181	.213	.125	.095	.114	.145
창업컨설팅지원	COS3	.072	.913	.009	.070	.072	.011	.163	.060
	COS4	.108	.898	.059	.028	.024	.022	.169	.070
	COS1	.133	.889	.064	.072	.039	.031	.176	.073
	COS2	.076	.869	.007	.068	.062	.046	.248	.057
창업 만족도	SAT4	.156	.058	.767	.194	.194	.212	.115	.134
	SAT3	.184	-.002	.747	.195	.183	.298	.161	.154
	SAT2	.235	.057	.734	.131	.180	.217	.079	.077
	SAT1	.313	.131	.692	.221	.148	.138	.082	.150
마케팅역량	MC3	.142	.086	.089	.814	.104	.007	.083	.121
	MC1	.200	.084	.115	.778	.189	.095	.064	.055
	MC4	.049	.055	.065	.762	.053	.065	.135	.073
	MC2	.217	-.004	.219	.735	.189	.156	.111	.087
	MC5	.192	.050	.276	.650	.155	.221	.146	-.022
사회적지지	SS4	.115	.125	.026	.096	.836	.069	.087	-.006
	SS5	.099	.232	-.004	.088	.798	-.022	-.004	.101
	SS2	.120	-.074	.319	.211	.734	.256	.124	.030
	SS1	.126	-.072	.333	.181	.729	.216	.212	.019
	SS3	.155	-.074	.294	.227	.698	.244	.152	.041
자아실현 동기	SFM5	.128	.038	.169	.133	.106	.821	.124	.087
	SFM4	-.004	.228	-.004	.071	.062	.754	-.065	.196
	SFM1	.076	-.033	.236	.081	.165	.754	.130	.164
	SFM3	.191	-.066	.379	.099	.159	.671	.175	.149
	SFM2	.153	-.084	.364	.164	.147	.628	.215	.182
창업자금지원	CS3	.042	.295	-.034	.130	.205	.130	.783	-.007
	CS2	.020	.296	.037	.148	.214	.106	.783	-.012
	CS4	.147	.273	.221	.148	.010	.069	.752	.107
	CS1	.171	.119	.299	.141	.044	.141	.745	.145
경제적 동기	EM4	.143	.142	-.119	-.017	.036	.057	-.057	.776
	EM5	.161	.193	.000	.030	.005	.136	-.045	.758
	EM2	.045	-.057	.368	.137	.016	.171	.147	.713
	EM1	.112	-.016	.403	.168	.060	.213	.217	.645
	EM3	.134	-.037	.278	.140	.080	.216	.124	.607
고유타값		12.101	3.953	2.783	2.634	1.913	1.666	1.377	1.183
분산(%)		11.484	10.127	9.837	9.370	9.168	9.084	7.931	7.624
총분산(누적 %)		11.484	21.610	31.448	40.817	49.985	59.069	67.000	74.624

4.1.2 신뢰성 분석

신뢰성은 측정용 도구의 오차가 최소한의 상태를 의미하며, 같은 현상을 반복 측정하였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변수를 측정하는 장비 또는 측정용 도구의 일관성 정도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측정용 도구로 여러 번 측정하거나 한 가지 측정 도구로 반복 측정한 두 측정 결과의 상관관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최종 8개 요인의 측정 결과에 대한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Cronbach's α 값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가 .6 이상이면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분석하는데, 본 연구의 측정 도구들은 신뢰도의 값이 모두 .7 이상으로 분석되어 신뢰도는 확보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측정 도구들의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IV-3>과 같다.

<Table IV-3>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Cronbach's α 값
경제적 동기	.793
자아실현 동기	.946
경험역량	.936
마케팅역량	.871
창업자금 지원	.866
창업컨설팅 지원	.948
사회적지지	.863
창업 만족도	.917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수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IV-4>와 같다. 연구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실현 동기와 창업 만족의 상관관계가 .587로 가장 높았으며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자아실현 동기와 창업컨설팅 지원의 상관관계가 .1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구성요소의 상관관계는 .8 이하로 나타나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설검증에 대한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을 확보하였다.

<Table IV-4>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 분	1	2	3	4	5	6	7	8
1 경제적 동기	1							
2 자아실현 동기	.483**	1						
3 경험역량	.369**	.334**	1					
4 마케팅역량	.308**	.375**	.430**	1				
5 창업자금 지원	.267**	.357**	.294**	.386**	1			
6 창업컨설팅 지원	.189**	.133**	.246**	.194**	.485**	1		

7	사회적지지도	.233**	.419**	.354**	.436**	.358**	.171**	1	
8	창업 만족도	.469**	.587**	.499**	.497**	.411**	.162**	.494**	1
	Mean	3.744	4.399	3.387	4.285	3.885	3.717	3.608	2.928
	SD	.823	.790	.901	.759	.991	.761	.978	.902

** 상관관계가 .01 수준에서 유의(양측)

4.3 가설 검정 결과

본 연구는 창업 동기 중 경제적 동기와 자아실현 동기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창업역량으로 경험역량과 마케팅역량을, 창업지원 정책 중 창업자금지원과 창업컨설팅 지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들 요인이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정하였다. 아울러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과를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3.1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 검정 결과

본 연구는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였다. 다중공선성 판단을 분산 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통해 확인하였다. VIF 기준은 10 미만이면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분석 데이터의 VIF를 확인한 결과 1.042~2.174로 기준치보다 낮게 나타나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위해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 나이, 결혼 여부, 학력, 현재 운영하는 회사의 업력, 총사업 경력으로 6개이다.

이어 모형 2에서는 통제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경험역량, 마케팅역량, 창업자금지원, 창업컨설팅 지원 요인들이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다. 총 6개를 투입했다. 분석 결과는 <Table IV-5>와 같다.

<Table IV-5>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검정 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B	β	t	p	B	β	t	p	VIF
(상수)	4.783		15.190	.000	.971		3.045	.003	
성별	-.081	-.043	-.815	.416	.033	.018	.470	.638	1.042
연령	-.011	-.141	-1.895	.059	-.003	-.044	-.808	.420	2.174
결혼 여부	.021	.017	.294	.769	.012	.010	.244	.808	1.198
학력	-.041	-.060	-1.109	.268	-.013	-.019	-.480	.631	1.105
현재회사업력	-.009	-.060	-1.048	.295	-.001	-.007	-.161	.872	1.224
총사업경력	.010	.109	1.578	.116	.005	.054	1.090	.276	1.781
경제적 동기					.122	.141	3.152	.002	1.441
자아실현 동기					.307	.322	6.934	.000	1.560
경험역량					.168	.232	4.921	.000	1.614
마케팅역량					.178	.190	4.179	.000	1.489
창업자금 지원					.107	.146	3.049	.002	1.659
창업컨설팅 지원					.052	.074	1.681	.094	1.402
F 값	1.659				31.322***				
F 변화량					59.343***				

R ²	.027	.519
수정된 R ²	.011	.503
R ² 변화량		.492

모형 1은 통제변수가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다. 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은 변수의 영향력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종속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말한다. 모형 1의 설명력(R²=.027, 수정된 R²=.011)은 2.7%이고, F=1.659(p > .05)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 변수는 없었다.

모형 2는 통제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경험역량, 마케팅역량, 창업자금지원, 창업컨설팅 지원이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의 설명력(R²=.519, 수정된 R²=.503)은 51.9%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31.322, p < .001). 통제변수 중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증된 것은 없었다.

경제적 동기는 B= .122, p < .01로 나타나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 경제적 동기는 창업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자아실현 동기는 B= .307, p < .001로 나타나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 자아실현 동기는 창업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경험역량은 B= .168, p < .001로 나타나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 경험역량은 창업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마케팅역량은 B= .178, p < .001로 나타나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4. 마케팅역량은 창업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창업자금지원은 B= .107, p < .01로 나타나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5. 창업자금지원은 창업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창업컨설팅 지원은 B= .052, p > .05로 나타나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6. 창업컨설팅 지원은 창업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각되었다.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인 변인들의 영향력 크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향력 크기는 표준화 계수의 β 값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값이 클수록 영향력이 큰 것이다. 자아실현 동기(β = .322) > 경험역량(β = .232) > 마케팅역량(β = .190) > 창업자금지원(β = .146) > 경제적 동기(β = .141) 순이었다.

4.3.2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검정 결과

본 연구는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경험역량, 마케팅역량, 창업자금지원, 창업컨설팅 지원이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있어서 사회적지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절변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통계적 방법은 여러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조절회귀분석(MMR,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이다. 이는 조절효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조절변수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이다. MMR의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은 기본 모형에 추가되는 변수와의 상호작용 변수에 대한 설명력의 상대적 기여도인 R²의 증가량에 의해서 검증된다. 그러나 MMR 분석 과정에서 투입되는 예측변수 간의 상호작용 방식은 다중공선성의 문제 발생확률이 높아서 회귀모형 추정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중 대표적으로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Aiken & West, 1991).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수와의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평균집중화 방법을 통해서 회귀 추정치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는 <Table IV-6>과 같다.

회귀모형 3은 통제변수와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경험역량, 마케팅역량, 창업자금지원, 창업컨설팅 지원, 조절변수인 사회적지지가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모형이다. 설명력(R²=.539, 수정된 R²=.522)은 53.9%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31.217, p<.001).

모형 4는 통제변수와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경험역량, 마케팅역량, 창업자금지원, 창업컨설팅 지원, 조절변수인 사회적지지 및 독립변수들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 변수가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모형이다. 모형의 설명력($R^2=.577$, 수정된 $R^2=.553$)은 57.7%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4.478$, $p<.001$).

조절 회귀분석 방법에 따른 조절효과 검정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기 전의 회귀모형과 투입 후의 회귀모형을 비교했을 때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가지고 조절효과를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설명력의 증가 여부에 대해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는 <Table IV-6>과 같다.

모형3에 상호작용항(독립변수 * 조절변수)을 추가 투입한 모형 4의 설명력 R^2 는 .577로 나타나 모형 3보다 3.8%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인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되었다. 이어서 각각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IV-6>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변수	모형 3				모형 4				
	B	β	t	p	B	β	t	p	VIF
(상수)	.763		2.406	.017	1.174		3.593	.000	
성별	.037	.020	.540	.589	.041	.022	.601	.548	1.081
연령	-.003	-.037	-.679	.498	-.003	-.036	-.681	.496	2.209
결혼 여부	.008	.007	.168	.867	-.001	-.001	-.019	.985	1.212
학력	-.012	-.018	-.463	.644	-.012	-.017	-.469	.639	1.122
현재회사업력	.000	.002	.054	.957	.004	.028	.699	.485	1.250
총사업경력	.005	.056	1.157	.248	.006	.067	1.416	.158	1.809
경제적 동기	.132	.151	3.451	.001	.093	.107	2.467	.014	1.530
자아실현 동기	.268	.281	6.014	.000	.224	.234	4.926	.000	1.825
경험역량	.146	.203	4.319	.000	.121	.168	3.638	.000	1.711
마케팅역량	.142	.151	3.321	.001	.145	.154	3.461	.001	1.589
창업자금 지원	.091	.124	2.624	.009	.079	.108	2.292	.023	1.797
창업컨설팅 지원	.052	.074	1.724	.086	-.031	-.045	-1.047	.296	1.465
사회적지지	.150	.169	3.863	.000	.147	.167	3.914	.000	1.466
경제적 동기 * 사회적지지					.083	.167	2.709	.007	3.061
자아실현 동기 * 사회적지지					.130	.197	3.042	.002	3.349
경험역량 * 사회적지지					.062	.091	1.980	.049	2.522
마케팅역량 * 사회적지지					.023	.040	.727	.468	2.396
창업자금 지원 * 사회적지지					.058	.101	1.799	.073	2.528
창업컨설팅 지원 * 사회적지지					.052	.081	1.625	.105	1.347
F 값		31.217***					24.478***		
F 변화량		14.924***					5.091***		
R^2		.539					.577		
수정된 R^2		.522					.553		
R^2 변화량		.020					.038		

경제적 동기의 상호작용항($B = .083, p < .01$), 자아실현 동기의 상호작용항($B = .130, p < .01$), 경험역량의 상호작용항($B = .062, p < .05$)이 유의하여 창업 만족 도간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7-1(H7-1) 사회적지지는 경제적 동기와 창업 만족도간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7-2(H7-2) 사회적지지는 자아실현 동기와 창업 만족도간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7-3(H7-3) 사회적지지는 경험역량과 창업 만족도간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마케팅역량의 상호작용항($B = .023, p > .05$), 창업자금 지원($B = .058, p > .05$), 창업컨설팅 지원의 상호작용항($B = .052, p > .05$)이 유의하지 않았다. 창업 만족도간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7-4(H7-4) 사회적지지는 마케팅역량과 창업 만족도간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7-5(H7-5) 사회적지지는 창업자금지원과 창업 만족도간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7-6(H7-6) 사회적지지는 창업컨설팅 지원과 창업 만족도간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4.4 논의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동기의 구성 요인으로서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창업역량의 구성 요인으로서 경험역량, 마케팅역량, 창업지원 정책의 구성 요인으로서 창업자금지원은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병권(2014), 이상화, 하규수(2015), 선량(2019), 장수덕(2020), 이성호, 남정민(2021), 한향원(2021), 송민용(2022) 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경제적 동기와 자아실현 동기가 창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2019년도 창업기업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 2022)에서 초기 창업기업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로 제시한 창업 동기가 ‘더 큰 경제적 수입창출(50.8%)’과 ‘적성에 맞는 일(39.9%)’임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 창업기업 대상의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업동기 요인 중 중요하게 제시되는 경제적 동기와 자아실현 동기가 창업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 창업 동기는 창업 의지와 창업 만족,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경험역량과 마케팅역량이 창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초기 창업기업의 특성상 경영자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초기 창업자가 동종 또는 유사 업종에서 겪은 업무 경험, 현장 지식과 노하우 등은 창업 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업자의 사업 효능감이 커지고 이에 따라 창업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초기 창업기업의 마케팅역량은 고객발굴, 고객 만족, 충성고객 확보 등을 통해 매출 등 영업실적과 직결되어 창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업자금 지원이 창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초기 창업기업의 특성상 기존 기업보다 자원의 보유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을 반영했을 것이다. 즉 초기 창업기업이 정부의 창업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아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고, 대외 협상력과 자신감을 강화함으로써 창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론할 수 있다. 반면, 창업지원 정책의 구성 요인 중 창업컨설팅 지원은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아 창업컨설팅 지원이 창업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승구(2017)의 선행연구와 같이 창업지원 정책 유형별 효과성 측면에서 교육지원과 컨설팅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낮게 나온 것과 유사하다. 이는 김선우(2020)의 주장과 같이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특성상 신뢰성 있는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어려운 여건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즉 정부가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경영·기술 컨설팅 등 창업컨설팅 지원 사업의 연계 체계가 취약하여 시너지 창출에 미흡하고 창업자의 효과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영향력 크기는 표준화 계수의 β 값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값이 클수록 영향력이 큰 것이다. 자아실현 동기, 경험역량, 마케팅역량, 창업자금지원, 경제적 동기 순이었다. 이에

관하여 선행 연구가 충분치 않아 비교가 쉽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추론해볼 수 있다. Ryan and Deci가 자기결정성이론(SDT)을 통해 주장한 바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는 외재적 동기보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따라서 내재적 동기로서의 자아실현 동기가, 외재적 동기로서의 경제적 동기보다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Herzberg가 주장한 동기-위생요인에 따르면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는 여건이 적당할 경우 불만을 줄일 수는 있으나 만족하는 수준도 크게 상승하지 않은 위생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재정적 요인이 창업 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윤백중(2012)의 연구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동기가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자아실현 동기뿐만 아니라 경험역량, 마케팅역량, 창업자금지원 등 여타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경험역량이 마케팅역량보다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창업기업 중에서도 초기기업이라는 특성상 창업 초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창업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마케팅역량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결과로 추론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창업 동기, 창업역량, 창업지원 정책이 창업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경험역량은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반면 마케팅역량, 창업자금지원, 창업컨설팅 지원과 창업 만족도간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과는 검증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경험역량은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변수로서 환경적 요소인 사회적지지가 더해질 경우, 창업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변화되어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사회적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본 연구 결과 창업 만족도에 정(+)의 인과관계를 미쳤음에도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마케팅역량, 창업자금지원은 사회적지지에 따른 영향 관계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지지가 환경적 요인으로써 창업자금 지원과 같은 정부 정책 등 제도적 요인이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관계에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았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 동기, 창업역량, 창업지원 정책이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어떠한 조절 효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증 연구를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초기 창업기업 250명을 분석하였다. 실증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 동기중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는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창업역량 중 경험역량, 마케팅역량도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창업지원 정책 중 창업자금 지원은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창업컨설팅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창업 동기, 창업역량, 창업지원 정책과 창업 만족도 간의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과 검증에서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경험역량은 조절 효과가 검증됐지만, 마케팅역량, 창업자금지원, 창업컨설팅 지원은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5.1 시사점

본 연구는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그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 분석한 것으로 학술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특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성과 또는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는 적지 않은 편이나, 기존 연구는 주로 외식업, 자영업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치우쳐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신용보증기금을 거래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 초기 스타트업

이 주요 연구 대상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둘째,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기존 연구에서 드물었던 경험역량 및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등 새로운 변수를 투입하여 검정한 결과 경험역량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한 영향 변수임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적지지는 가설대로 창업 동기, 창업역량과 같은 창업자의 개인적 변수와 창업 만족도 사이에 조절 효과가 나타났으나, 창업컨설팅 지원 정책과 같이 제도적이거나 마케팅역량과 같이 시스템적인 변수에서는 조절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자아실현욕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창업가에게 있어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에 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스스로가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사업을 통해 꿈과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할 때 창업의 만족도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비 및 초기 창업가에 대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도 이러한 시사점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 결과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경험역량이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기 창업기업은 창업가의 개인적 역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상 창업가가 충분한 경험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창업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이겠으나, 모든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가가 충분한 경험역량을 보유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험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초기 창업가들에 대해 사업 운영에 관한 전문가들을 활용해 멘토링 지원을 강화하여 간접 경험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업지원 정책 중 창업컨설팅은 창업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미치지 않았는바, 정부의 창업컨설팅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무적 시사점을 종합하면, 최근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서 초기 창업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도전과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정부 등 기업 외부의 창업지원 정책에 기대기보다는 창업기업 스스로 내재적 창업 동기인 자아실현 동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경험역량, 마케팅역량과 같은 내부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 만족도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 한계 및 향후 방향

이상의 연구 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창업 후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연령이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라 할지라도 창업준비 수준, 창업가 역량 등에 따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 기업별로 다른 성장 단계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만족 정도인 창업 만족도를 측정 함에 있어 기업이 처해있는 성장단계를 감안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창업 만족도는 응답자가 설문에 응답할 시점에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일관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창업 성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함께 분석했다. 그러나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재무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거나 객관적 신뢰성이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상황 악화는 기업의 경영성과 창출에 예측이 쉽지 않은 돌출적 변인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창업 만족도를 창업 성과의 대체 변수로 연구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FERENCE

- 고석원(2019), *창업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권기환, 김진홍(2017), “선량한 마음은 사회적 기업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기업경영연구*, 24(6), 101-121.

- 권재기, 한운영(2021), "차세대영재기업인의 창업동기, 기업이 핵심역량과 창업의지에 대한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영재와 영재교육*, 20(4), 163-186.
- 김남표, 권영주(2018), "소상공인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정책개발연구*, 18(1), 131-157.
- 김덕기, 박효선(2021), "군사학전공 대학생의 공공봉사동기, 직업선택 동기, 전공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 *직업교육연구*, 40(2), 25-42.
- 김도희(2021), "청년 창업자의 창업지원이 창업역량과 창업만족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내재적 동기의 조절효과," *Entrepreneurship&ESG연구*, 1(1), 92-117.
- 김상화(2022),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기업의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6(3), 111-131.
- 김선우, 고혁진(2020), "정부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고찰과 향후 과제," *기업가정신연구*, 1(1), 19-34.
- 김수길, 현병환(2022), "정부 기업지원 사업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흡수역량 및 기업지원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7(4), 143-161.
- 김순태(2013), *소상공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 요인이 사업전략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김재홍, 최낙희, 김재철(2021), "소상공인의 창업가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쟁자지향성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 조절효과," *한국창업학회지*, 16(3), 128-156.
- 김진한, 조진형, 이세재(2020), "창업가역량과 창업보육 프로그램 지원이 기술창업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창업기업 역량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43(1), 132-142.
- 김창봉, 이승현(2017), "1인 기업 창업자 역량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30(8), 1387-1407.
- 김춘근, 이충석, 김진수(2014), "기술창업기업 초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연구*, 21(5), 63-86.
- 박경석(2014), *중국동포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박남규, 김명숙, 고종욱(2015),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6), 89-98.
- 박남태, 이보영(2016),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개인특성과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5), 67-75.
- 박성근(2021), *농산업 ICT 기술적특성 인식과 창업동기가 스마트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박준기, 이세운(2017), "스타트업 팀의 조직 자부심 선행요인," *경영경제연구*, 39(2), 163-188.
- 박희상(2020), *창업기업의 사회적 자본과 정부창업 지원이 흡수역량을 통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 선량(2019), *예비청년창업가의 창업동기와 실패부담감이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지향성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송민용(2022), *창업보육센터 지원프로그램의 질과 기업역량이 입주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 안상봉, 신용준(2017), "우리나라 창업지원제도 현황과 발전방안," *經營史學*, 82(-), 149-172.
- 안승구(2017), "기술기반 창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 정책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양경애, 하규수(2020), "중장년층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5(4), 45-55.

- 오승국(2016), *중장년 남성 실직자의 진로장벽,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구직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대학원.
- 오재우, 이동형, 강진규(2015), "창업준비성이 창업초기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벤처창업연구*, 10(4), 67-80.
- 유봉호(2013), "청년창업자의 심리특성과 내재적 동기가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6(10), 2669-2690.
- 윤백중(2012),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이병권, 전인오(2014), "창업동기요인이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6), 213-230.
- 이상화, 하규수(2015), "창업가정신, 창업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플로우(Flow)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5), 137-150.
- 이성호, 남정민(2021), "창업가역량이 창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적합도의 조절효과 검증," *벤처창업연구*, 16(4), 85-99.
- 이혜영, 김진수(2019), "창업가의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벤처창업연구*, 14(5), 13-24.
- 임희진, 김재홍, 박지윤(2020),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17(3), 63-102.
- 장수덕(2020), "무엇이 청년창업자들을 만족하게 만드는가? 창업의 외재적·내재적 만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5(2), 96-118.
- 장영미, 하규수(2018), "시니어의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벤처창업연구*, 13(3), 13-36.
- 정경희(2020), "초기 창업기업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창업업종 및 창업성장단계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5(1), 59-70.
- 정두식(2016), "창업가 특성 및 경력지향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산업경제연구*, 29(4), 1565-1586.
- 정승환, 최영재, 정혜진(2017), "축제서비스품질이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호텔경영학회지*, 26(4), 207-223.
- 주진희, 현성협(2018), "크루즈 승무원의 직무스트레스 회복경험이 내재적 직무동기, 혁신행동 및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33(1), 297-316.
- 창업진흥원(2022), "2019년 창업기업실태조사", 2022.11.29. <https://www.kised.or.kr>
- 최동은, 황선진(2018), "디자인 창업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질적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9(4), : 445-462.
- 최명화, 조성숙(2014), "중년 직장인의 퇴직 후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7), 226-241
- 통계청(2021), "기업생멸행정통계", 2022.11.29. <https://www.kostat.go.kr>
- 한만선(2020), *중장년 창업가의 창업역량과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 한향원(2021), *초기창업자의 창업요인이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Alshibani, S. M., and T. Volery(2021),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ntrepreneurs: A Latent Growth Curve Modelling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42(2), 219-239.

- Baum, J. R., E. A. Locke and K. G. Smith(2001), "A Multidimensional Model of Venture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292-303.
- Burden, H. and F. Sprei(2021), "Teach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Entrepreneurial Experi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ility in Higher Education*, 22(1), 142-156.
- Carree, M. A. and I. Verheul(2021), "What Makes Entrepreneurs Happy?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Among Founder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 371-387.
- Cetin, G., Z. Alrawadieh and F. Ali(2022), "Entrepreneurial Motives, Entrepreneurial Success and Life Satisfaction of Refugees Venturing in Tourism and Hospit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34(6), 2227-2249.
- Chandler, G. N., and E. Jansen(1992), "The Founder's Self-Assessed Competence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3), 223-236.
- Hudek, I., Tominc, P., and K. Širec, (2021), "The Impact of Social and Cultural Norms, Government Programs and Digitalization as Entrepreneurial Environment Factors on Job and Career Satisfaction of Freelancers," *Sustainability*, 13(2), 779-7.
- Khan, H., and Z. Khan(2021), "The Efficacy of Marketing Skills and Market Responsiveness in Marketing Performance of Emerging Market Exporting Firms in Advanced Markets: The Moderating Role of Competitive Intensity,"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30(6).
- Milot-Lapointe, F., S. J. P. Boua, and E. St-Jean(2021), "Motivation and the Careers of Agricultural Entrepreneurs in Ivory Coast," *Journal of Enterprising Communities: People and Places in the Global Economy*, 15(2), 723-738.
- Morris, M. H, Webb, J. W., Fu, J., and S. Singhal(2013), "A Competency-Based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ceptual and Empirical Insigh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1(3), 352-36.
- Sarkar, S., Osiyevskyy, O., and L. Hayes, (2021), "Talking Your Way into Entrepreneurial Support: An Analysis of Satisfaction Drivers in Entrepreneur Mutual Aid Group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7(2), 275-297.
- Sala, P. K., Philbin, S. P., and S. Barikzai(2022), "A Qualitative Research Study of the Tech Startup Journey Through Entrepreneurial Pivo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28(4), 1050-107.

Effects of Startup Motivation, Startup Competence, and Startup Support Policy on Startup Satisfaction in Early Startup Companies :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ang, Young-chul¹⁾

Ha, Kyu-soo²⁾

Abstract

Entrepreneurship has been emphasized in social and national importance. However, survival rate of domestic startups is relatively low. Therefore, it is urgent to come up with a plan to increase the survival rate by improving the satisfaction level of early start-up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start-up motivation, start-up competence, and start-up support policies of early start-up companies on start-up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Startup motivation were divided into economic motivation and self-actualization motivation in detail. Start-up competence was divided into experience competency and marketing competency in detail. The start-up support policy was divided into start-up fund support and start-up consulting support.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receiving online and offline questionnaires from 250 managers of early start-up companies within 7 years of founding. As a result, economic motivation, self-actualization motivation, experience competency, marketing competency, and start-up fund support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start-up satisfaction. However, start-up consulting suppor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addition, the size of the influence on startup Satisfaction was in the order of self-actualization motivation, experience competency, marketing competency, startup fund support, and economic motiva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was found in economic motivation, self-actualization motivation, and experience competency.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f marketing competency, start-up fund support, and start-up consulting support was not tested.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the academic implications that self-actualization motivation and experience competency are key factors in enhancing start-up satisfaction were suggested. In addition, practic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and entrepreneurship consulting support systems that can maximize the self-realization and experience capabilities of early entrepreneurs.

Keyword: Early Start-ups, Start-up Motivation, Economic Motivation, Self-actualization Motivation, Start-up Competency, Experience Competency, Marketing Competency, Start-up Support Policy, Start-up Fund Support, Start-up Consulting Support, Social Support, Start-up Satisfaction

1)First Author, Doctoral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yc3442@naver.com

2)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ksh@hoseo.edu

저 자 소 개

- 강영철(Kang, Young-chul)
- 신용보증기금 부장,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관심분야> : 경영컨설팅, 기업기술가치평가, 4차산업 비즈니스 모델, 스타트업, 창업 등

교 신 저 자 소 개

- 하규수(Ha, Gyu-soo)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경영학 박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미국 연방변호사
-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전), 한국 산업정보학회 회장(전)
<관심분야> : 벤처창업, 벤처경영, 경영전략 등